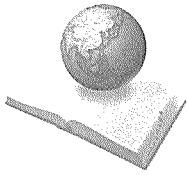


해외탐방



유럽의 동쪽 시작점, 아시아대륙의 서쪽끝 그리고 푸른 하늘의 고향 우크라이나 키예프



최 태 인

한수원(주) 방사선보건연구원
응급의료팀장

올해가 체르노빌 사고가 난지 20주년이다. 당시 구소련의 사고원전이 위치했던 곳은 현재 분리 독립된 우크라이나이다.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백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이다. 사고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원전사고 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전문가들을 포함 반핵환경단체인 그린피스등 여러 단체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2년 마다 개최되는 WHO의 REMPAN의 정례회의도 체르노빌 사고 20주년에 맞추어 함께 개최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WHO-REMPAN은 방사선 사고는 한 도시나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임을 인식하고, 국가간 의료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주최로 설립되었으며 사고 해당국가에 실질적인 의료지원과 권고를 위한 비상의료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다. 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과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2004년에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REMPAN 미팅에서는 WHO, IAEA

및 협력센터 (Collaborating Center 및 Liaison Institute)가 15개국 24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방사선사고 및 테러 시 비상대응을 위한 참여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최신 치료법을 소개하였으며 각국 기관들의 비상의료관련 다양한 정보 교환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WHO-REMPAN에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방사선보건연구원 김중순 원장님과 필자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최창훈센터장(핵의학 전문의), KINS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했다.

필자는 의사로서는 생소한 분야인 방사선비상의료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의 동쪽 끝 모퉁이, 유럽과 아시아의 분기점인 키예프로 향했다. 상공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륙의 평야는 여행에 지친 육신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키예프는 북으로부터 남쪽 흑해로 흐르는 드네프르(Dnipro)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국제공항 보리스폴(Borispol)공항, 우리나라 지방공항 규모보다 약간 커보이는 듯했다. 구소련의 군사목적으로 지어진 낡은 건물 옆에 보란 듯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설 대합실은 개혁과 세계로 향하는 개방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대륙간 국제선 노선은 없었으나 유럽의 주요 도시를 잇는 항공노선은 개설되어 있는 듯했다.

짐을 찾는 동안 다른 여행객들의 가방들은 온통 랩으로 둘둘 말아 포장한 모습들이 도난 방지를 위한 목적임을 알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방을 기다렸으나 다행히도 분실물은 없었다. 모차체에 비해 커다란 우스운 소련식 모자를 쓴 세관원을 뒤로하고 공항을 빠져나와 키예프로 향했다. 공항은 수도 키예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약 30분 거리에 있었다. 도시로 들어서면서 곳곳에 보이는 건축공사장과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들은 한국의 신도시개발과 흡사했다. 구소련의 몰락과 친 유럽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된 자유 시장경제체제 도입 그리고 서구유럽의 자본 유입은 때 묻은 구소련의 흔적들을 지우 듯 도시와 도시 변두리를 공사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내 중심가의 집값과 임대료는 한국 못지않으며 부동산가격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했다.

우리가 묵은 호텔은 시내 중심가 도로 그레샤티크(Khreshchatyk str.)가에 있는 고딕양식의 대리석 건물이었다. 이 거리는 키예프 도심 중심을 동서로 통과하는 2km 되는 거리로 널찍한 도로와 보도를 양옆으로 나란하게 늘어선 유럽 19세기말에 지어진 듯한 고풍스러운 유럽식 대리석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들어서 있다. 거리의 양쪽 끝은 광장으로 이어져 있

다. 같은 거리 호텔에서 10m 동쪽으로 커다란 원형광장이 도로 양편에 펼쳐져 있고 도로 남쪽 광장에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기념하여 세운 황금빛 천사 탐이 우뚝 솟아 있다. 2004년 키예프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 했다. 이 광장(Maidan Nezalezhnosti)이 2004년 자유에 대한 갈망과 공산당독재에 대항해 오렌지색 스카프와 깃발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이 공산집권정부에 평화적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준 Orange Revolution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지금은 시민들의 평화의 함성은 시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과 부활절 휴일을 맞아 거리 공연만이 광장의 빈 공간을 채우는 시민의 쉼터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도시의 건물과 도로를 가르는 늦은 봄 산뜻한 공기와 대지에 반사되는 반짝이는 수정같이 해맑은 햇살은 황사로 오염된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맑고 깨끗했다.

19세기 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과 기아로 수백만 명이 죽은 암울한 역사의 흔적은 늦은 봄 이 도시 이 거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도시 전체는 구소련의 흔적을 털어 내듯

넓은 건물은 새로운 단장을 하며 자본주의 수업을 시작한 듯 보였다. 도심 곳곳에 들어선 맥도날드를 제외하고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친절 한 배려를 기대하기에는 키예프는 아직 심리적으로 구 소련식배급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짐을 풀고 잠시 도시의 서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 중앙로를 따라 산책을 나섰다. 사실 필자는 체르노빌사고 20주년이라 그에 관한 기념 행사로 도시 전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슬픈 기억에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기대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휴일이라 그런지 교통을 통제해 모든 사람들이 대로를 자유롭게 오가며 맥주를 마시며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단 한 장의 체르노빌 20주년 기념 현수막이나 벽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 외부인들의 요란한 관심에 비해 정작 당사자들은 무관심 한 듯 보였다. 세월의 망각은 암울한 기억 속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슬픔이 너무나 커 모두들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필자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그리스 정교의 가장 큰 축제와 국경일인 부활절 (4월23일) 연휴 기간이었음을 알았다.

큰길가의 낡은 건물은 재건축되어 새롭게 서구식 유명 상품을 파는 상점들로 변신해 속속들이 중심가 도로에 들어서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년 3000불을 밑도는 국민소득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러한 상점들은 대로를 즐비하게 장식하고 있어 경제개혁과 초기 자본주의 도입 시 생기는 특권계층에 대한 부의 편중과 사회전체의 소득불균형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옛 소련의 가장 중요한 경제 구성체였다고 한다. 비옥한 흑토에서 소련의 1/4이상의 곡식을 생산 공급하였고 또한 중공업분야는 옛 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기계설비와 원자재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1991년 독립은 이루었지만 옛 소련 체제를 그리워하며 기득권을 고수하는 공산당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독점 지배구조와 불안정한 정치경제상황은 경제개혁과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길은 아직도 험경계만 느껴졌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그리스정교의 황금 빛 지붕에 반사되는 현란한 아침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체르노빌 국제 심포지엄의 규모 및 진행은 첫날부터 엉망이었다. 우리일행은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 입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등록을 하고 허접한 가방꾸러미와 내용물을 받아 쥐고 나서야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첫날은 기대에 못 미치는 회의규모나 진행의 난항으로 실망은 했지만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키예프의 도시전경과 미모의 슬라브 여인들의 모습에 모든 것이 보상된 듯 하였다.



회의장 앞에서 반핵단체들의 시위대가 있었으나, 과격한 시위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그 또한 실망이었다. 한국에서 보아왔던 과격한 시위대나 로봇컴 처럼 완전 무장한 진압경찰도 없었다. 20명 정도의 앳된 청년들이 두서너장의 플래카드를 들고 와서 회의가 열리는 장소 앞 광장에서 핵 반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다였고 경찰들 몇 명은 지루한 듯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신기한 듯 기념사진 찍듯이 시위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영성한 시위대를 뒤로하고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도심 중심가로 발길을 돌렸다.

아침에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와 약간 재촉한 일 그리고 커피를 리필 해달고 했더니 불쾌한 듯 심기를 드러내는 웨이터의 모습에 놀라기는 했지만 자본주의 서비스를 막 배우기 시작한 레스토랑 아가씨를 탓하는 것도 지나친 것 같아 막상 덮어두기로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는 듯 했다. 요 며칠 아무거나 먹으면 어떠라는 생각이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아침마다 나오는 밥 없는 오므라이스에 영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칼칼하고 구수한 고추장 된장이 그리웠다.

어디 한국음식과 비슷한 음식이라도 있나 찾아볼 심사로 우리일행은 시내에 위치한 지하상가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하도는 머리가 맞닿을 것 같이 천장은 낮고 희미한 백열전등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 어두컴컴한 토굴 같았다. 철창으로 무장한 여러 개의 구멍가게와 주점에서는 주로 커피와 술 종류를 팔고 있어 허연 대낮에도 술꾼들이 두더지처럼 모여 취한 모습으로 좁은 지하 통로에서 담배를 피워대 너구리소굴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두컴컴한 지하도벽을 따

라 가다 환하게 빛을 발하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신세계 같은 판 세상이 펼쳐진다. 규모는 우리나라 코엑스 지하상점보다 심분의 일도 안되지만 지하 커다란 코리도아를 따라 1층과 2층이 서로 한 공간으로 연결된 지하 쇼핑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도 개방 후 구 지하도와 연결해 건설한 것 같았다.

유럽의 각종 유명 명품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으며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종합음식점도 있었다. 무작정 한국음식 비슷한 음식점을 찾아 일본식 스시를 판다기에 충무김밥 비슷한 것 하고 몇 가지 스시를 주문했다. 주문 후 한참에서야 나온 음식은 배고픔을 참고 기다린 보람도 없이 음식의 양이나 맛 그리고 질은 일순간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그나마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그런대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음식점에서 음식의 무게를 달아서 파는 모습은 우리로서는 무척 생소 했지만 배급경제의 산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이들 후 우리는 한국식당을 발견하게 되어 토종음식의 그리움을 그나마 달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키예프는 관광객을 위한 당일 시티투어등 관광 상품이 충분하게 상품화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호텔에서 제공한 도시관광지도를 들고 나름대로 워킹투어계획을 세우고 낯선 도시 탐험에 들뜬 마음으로 거리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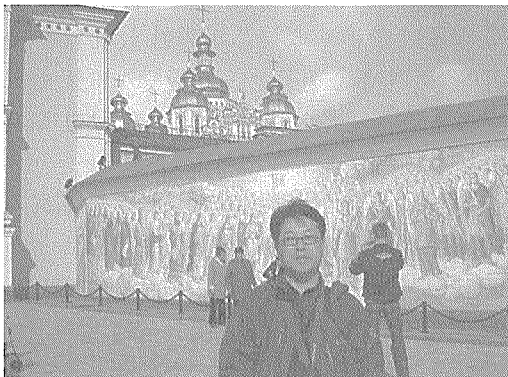
키예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을 가로지르는 드네프르(Dnieper)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다. 다행히도 대부분 관광명소인 교회 및 도시중심가는 강 동쪽에 발달되어 있어 도보로 한나절이면 좀 떨어진 곳을 제외

하곤 거의 돌아 볼 수 있을 만큼 도시 규모는 작은 편이다.

지하철은 도시의 동서를 가르며 4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금은 1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지하철은 우리나라와 달리 폭격을 대비해 지하 깊게 설치되어 있어 에스컬레이터로 수십 미터 내려가야 승강장에 도달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수십 미터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처음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으나 몇 번 타고나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듯 했다. 1960년 초반에 건설된 지하철은 아직도 전자장비 없이 인간과 수동식 기계장치에 의존한 아날로그 방법으로 정확하게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아직도 키예프 시민의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실업자의 존재가 통용될 수 없었던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에서 효용성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도입 된지 10년이 넘는 지금도 지하역사 곳곳에 아무 할일 없이 서 있는 역무원이나 길거리마다 볼 수 있는 한가한 경찰을 보면 그 흔적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금빛 지붕으로 장식한



그리스정교 카테드랄(교회당)은 구소련 스탈린시절 민족종교로 받아들이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위를 우려 상당한 교회들이 파괴 또는 박물관으로 무분별하게 개조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독립된 후 우크라이나 민족 정신적 구심점으로 교회들은 다시 원형으로 보수되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원형을 되찾고 있었다.

대부분의 그리스 정교 교회당들은 드네프르강 동쪽의 언덕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강의 경치를 배경으로 남쪽을 향해 별장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 아름다운 오리엔탈 비잔틴 건축양식의 세인트 미하엘 성당과 세인트 소피아성당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교회는 동서로 약 1km 길게 나있는 도로의 양 끝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다. 마치 전우와 직녀처럼 수백 년의 만남의 그리움 속에 서로 마주만 보고 있는 애절한 연인들의 느낌이 마음속으로 다가 오는 듯 했다. 아침에 동이 트면 소피아성당의 금빛 지붕에 태양빛은 산란하게 부서지며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마주 보고 있는 미하엘 성당에 내비취고, 저녁 석양에 비친 미하엘 성당의 은은한 붉은 금빛은 은은한 사랑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성당의 모습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와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많은 시민의 좁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는 애국성지로서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민족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몽골의 지배를 받아 동양의 피를 가지고 있어 러시아나 폴란드의 슬라브족과는 달리 뛰어난 미인과 미녀가 많다.

특히 키예프의 여인들은 슬라브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다. 흰칠한 키에 갈색눈과 주먹만한 얼굴, 균형 있는 몸매는 러시아의 여인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인구의 약 22%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인은 아시아의피가 섞인 듯한 외모가 매력적이었다. 하다못해 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는 아르바이트 아가씨들도 모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하며 자존심이 강해 보였지만 친절하고 정직해 보였으며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나 경계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들은 외국인에 대해 특히 아시아인에 호기심이나 일반적인 관심도 없는 듯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할 수 없어 그런 대로 손짓 발짓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슬라브어식 간판들은 우리들의 이정표로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 택시는 시내에서는 30 후리브나(약 6000원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해결 할 수 있으나, 명심할 것은 출발 전에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처음에 나이키 매장에 중무장한 경비원을 보고 이 나라 치안사태는 뉴욕 할렘 버금가겠구나 하는 우려는 밤길을 걸어보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시 치안상태는 다른 유럽도시 보다는 안전한 것 같았다. 밤늦게 길을 다녀도 신변위험을 받을 만큼 살벌하다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부분 안전하며 모든 상품에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상점에서 바가지요금은 경험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일반적인 질서의식이나 문화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였다.

중무장한 군인들과 경찰 등이 애워싼 한국의 청와대와는 다르게 시민공원 자투리에 있는 대통령 궁은 한두 명의 경찰만 보일뿐 그렇게

경비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상점에서 총기를 거래하고 고급상점과 은행마다 중무장한 경비원이 있는 것과 대비되는 허술한 대통령 궁의 경비는 아직도 이해 할 수 없는 키예프의 문화다.

회의일정관계로 체르노빌현장방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체르노빌 박물관은 방문 할 수 있었다. 도시변두리에 위치한 박물관은 당시 상황을 사진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었으며 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현재 체르노빌사고 지역 방문은 일반인들에게는 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비를 지불하면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쁜 한주간의 회의일정으로 키예프의 모든 곳은 돌아 볼 수 없었지만 그런대로 톱툼이 이곳저곳 두루 돌아다닌 것 같다.

공해로 오염되지 않은 푸른 하늘 숲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계획된 도시, 그 도시를 휘감아 돌듯 흐르는 드네프르 강이 조화롭고 여유로운 도시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싸 가격에 수준 높은 발레 및 오페라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곳도 키예프다.

우크라이나보다 6배 이상의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여유롭지 않다. 요새 우리나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힘들다는 사람이 많다.

우리 연소득 1/6도 안되는 낮은 소득과 하루 8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에도 그들은 우리처럼 바쁘게 쫓기듯 살고 있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 그들도 나름대로 과도기적 어려움은 있지만 겉으로 보는 상대적 행복감은 우리보다 6배 이상 높아 보였다.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벌어도
그들처럼 여유롭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것
같다. 알코올 도수가 약간 높은 우크라이나의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잠재력과 행복의 기준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며 흑해를 향해 유유히
흐르는 우크라이나의 젓줄 드네프르 강을 뒤
로하고 우리는 한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키예

프를 떠났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를 반기는 것은 하
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독한 황사로 뒤덮인
인천공항이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나에게서는 키예프의 푸르
른 하늘과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햇빛, 그리고
도심을 가르는 시원한 바람과 입안을 맴도는
상큼한 맥주 맛이 꿈결 같이 다가온다. **KRIA**